

교회소식

- 성전 이전을 위한 전 교인 정오 기도 시간을 선포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마음이 되고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 다음 주일은 그루터기(30, 40대 성도) 주일입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예배 후에 성전 이전 자문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1시 30분, 느헤미야 실).
- 인도자 성경공부가 성전 이전 자문 위원 모임 후에 있습니다(느헤미야 실).
-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디자인, 내용 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담당할 성도는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창립 주일(7월 18일)에 김동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A u g u s t

교회사역일지

8월 8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8월 15일(주일)
그루터기 주일
8월 22일 (주일)
권사 기도회
8월 25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8월 15일 (주일)
이광희 장로
8월 18일 (수)
김명옥 집사
8월 22일 (주일)
박병민 장로
8월 25일 (수)
김민경 집사

8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23권 32호 2021.08.0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발췌서 4:6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 양	하박국 3:17-18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인도자
* 찬 송	29장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98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박제용 장로
성 경 봉 독	창세기 24:50-58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나의 의를 버리고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태한 목사
찬 송	205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 응 답 송	171장 (1절)	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이은주 선교사 소식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캄보디아는 더위와 Covid-19의 변이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생명나무 장로교회: 캄보디아 종교부의 방침은 교육부의 방침과 연동되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대중집회와 각종 모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져서 교인들 모두 아쉬워하며, 오늘도 대면 예배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정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의 모든 정황을 미뤄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첫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 의회도 온라인으로 열어야 할듯합니다.

생명나무 책 나눔: NGO 월드 디아코니아와 망고나무 출판사와 손을 잡고 “책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43개의 초등학교, 2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제법 큰 규모의 교육사업입니다. NGO 월드 디아코니아와 망고나무 출판사로부터 7천여 권의 책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지역 학교의 도서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독서지도를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추후 몇몇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각 지역의 학교 안에서 현지 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독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각 초중등학교에는 수업 시간 중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독서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욱이 기증되는 도서의 전부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가치관을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불교가 국교인 캄보디아에서 직접적인 복음 증거만큼 중요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지만, 교사들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들을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환영받으며 만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 나눔”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제목

1. 현지 로컬 학교 “책 나눔(Book Share)”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2.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속히 대면 예배와 유치원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강동호 집사
성	경	Scripture	사무엘상 16:6-13
설	봉	Sermon	하나님에게 선택 받은 사람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90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 설교말씀 <종된 자의 자세> 창세기 24:28-34, 48-49

모든 인생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안고 삽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종된 것을(34) 분명히 알고 살았기에 종된 자의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1) 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라반은 처음 보는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31)라는 말로 맞아들였습니다.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종의 말과 행동을(창 24:26-27)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으로 내 믿음과 내가 받은 복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정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얻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대이기에 우리가 얻은 기쁨과 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손해도 감수하며 양보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롬 16:19). 그러려면 선과 악,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악에 무너지는 대신 악이 싫어져 악을 떠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라반의 환대와 섬김에도 종은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난 자신의 여정을 중언했습니다(35-48). 이 길고 험한 여정 중에 종은 시종 일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흥해 앞에서 또 음식이 떨어졌을 때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광야의 고난 중에도 결국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 길입니다.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마 28:2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뿐 절대 실패하지 못합니다. 성전 이전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에 수많은 부정적 상황을 마주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유일하고 최선인 삶의 방법입니다.

3) 종은 사명을 우선하는 사람: 종은 700Km의 길을 왔음에도 식사를 마다하며 일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33). 자기의 사명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요 4:34) 하시며 육의 양식 보다 영의 양식이 우선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세상 사람의 원리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요 6:26-27).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마 6:31-33).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님만을 따라감으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날마다 거룩하고, 진리 안에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선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질병에서 놓임 받고, 관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